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3주일

제30권 21호(다해) 2010 · 4 · 18

[묵상]



베드로에게 양 떼를 맡기시는 예수님
<라파엘로, 1515년, 유채,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런던>

참으로 답답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이나 발현하셨는데도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다들 따라 나서네요.

예수님께서 시키신 새로운 일,

사람 낚는 일이 아니라

옛날 일을 하겠다는군요.

끝가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도망간 곳까지 찾아가

아침상을 차려놓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침을 나눈 제자들

이제 다시는 옛날 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이미 만나버린 이들이

예수님을 미처 만나지 못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버린 저희들은

그 이전의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수 요 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 요 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9:00 오후 7:30
금 요 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 요 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 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들

화 요 일	배론 청년회 성경공부	오후 7:30
수 요 일	면담의 날 (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 요 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 요 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 요 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00
주 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 꾸리아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가정의 날 / 사목회 첫째/셋째주 - 대학부(PACEM)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2:30 오후 1:00 오후 2: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변세연 대건안드레아, (생) 김석기 스테파노 & 박지영 레지나 가정, 제프리 마틴 & 마리아 가정, 김문선 미리암
	(연) 송병은 바오로, 오재복 요셉, 안준환 미카엘, 김형태 야고보, 이만복 로사, 이금순 마리아, 이영자 마리아, 고준희 제임스, 이현호 요한, 임계순, 김종환 야고보, 엄은섭 도로테오, 윤준의 스킵라스티카
주 일 낮 미사	(생) 엄세종 그레고리, 김성종 토마스, 조화숙 안젤라, 김시문 & 문선 미리암 가정, 임바오로, 이명렬 라파엘, 하정화 켈마, 제프리 마틴 & 마리아 가정, 반성은 그레이스, 이근모 마리오 & 이행자 리드비나, 이종원 베드로 & 아네스 가정, 김요세피나 제65차 ME 첫주말 참가자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 5,27ㄴ-32,40ㄴ-41
화답송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저 당신을 높이 기리려 하나이다. <전례성가 71, 부활 제3주일 다해> ○주님,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웃지 못하게 하셨으니, 저 당신을 높이 기리려 하나이다. 주여, 제 영혼을 명부에서 건져주시고, 구령으로 들지않게 되살려 주셨나이다.○ ○주님, 찬양하라, 너희 그 성도들아. 거룩하신 그 이름에 감사드려라. 그 노여우심은 잠시뿐이나, 그 어지심은 한평생 가나니, 울음이 저녁에 갓들어도 새벽이면 즐거움이 있도다.○ ○주여, 듣자오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몸을 돕는 분이 주여 되시옵소서. 이 내 슬픈 울음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님, 저의 하느님이며, 영원히 당신을 찬미하오리다.○
제 2독서	요한 묵시록 (Revelation) 5,11-14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복음	요한 (John) 21,1-19 <또는 21, 1-14>
영성체송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서 와 떡어라.” 하시며, 빵을 들어 그들에 나누어주셨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66	166
봉헌	257	269
성체	내가 너를 기쁘게 하리라	283, 298
파견	162	170

2.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 생명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 -

▶ 인간 생명의 불확실성 안에서, 예수께서는 생명의 의미를 완성으로 이끌어 가신다.

예수님의 설교와 행위의 대상은 누구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찾는 병자와 버림받은 사람들의 무리는(마태 4,23-25 참조) 그분의 말씀과 행위 안에서 자기들 생명의 위대한 가치에 대한 계시를 발견하며, 그들의 구원에 대한 희망이 얼마나 튼튼한 토대 위에 서있는지 알게 된다.

이와 똑같은 일이 교회 사명 안에 초창기부터 일어난다. "하느님께서...그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해주시고 악마에게 짓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사도 10,38) 하고 그리스도께 대해서 말할 때, 교회는 자신이 인간 삶의 어려움과 가난의 바로 한복판에 전혀 새롭게 울려 퍼지는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서 날마다 구걸을 하고 있던 앓은뱅이를 고쳐주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시오." (사도 3,6)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사도 3,15) 이신 예수께 대한 신앙으로, 버려져 도움을 청하며 울부짖는 생명이 자존심과 완전한 품위를 되찾게 된다.

예수님과 당신 교회의 언행은 단지 병들었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어떤 경로로 사회에서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참 의미에 윤리적, 영적인 차원에서 더욱 깊은 영향을 준다. 자신들의 삶이 죄악으로 물들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구세주 예수님과 그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들 실존의 진리와 확실성을 발견할 수 있다. 예수께서도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루가 5,31-32)

그러나 복음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 지주처럼 물질적인 재산만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생명은 그에게서 떠나가며, 곧 그는 생명의 참된 의미를 이해해 보지도 못한 채 그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어리석은 자야, 바로 오늘 밤 네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그러니 네가 쌓아둔 것은 누구의 차지이 되겠느냐?" (루가 12,20).

33).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삶 안에서 인간 생명의 불안정성에 대한 체험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긍정 사이의 독특한 "변증법"을 발견하게 된다. 예수님의 삶은 탄생하는 첫 순간부터 불안정성으로 점철된 삶이었다. (◆계속)

“와서 아침을 먹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제자들의 직업과 연관됩니다.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갈릴래아 호수로 나갑니다. 그들이 고기 잡는 일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신들의 스승 예수님께 낙담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절망은 곧바로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물에서 나타났습니다. 제자들 스스로 결정한 일의 결과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 기인합니다. 넓은 호수는 이세상에 비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신 이유는 당신의 사명에 충실하여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지만으로 세상에 나아가 결국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실패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돌출적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베드로는 벗고 있던 옷을 다시 입고 물에 뛰어들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서 옷을 벗었다는 것은 아직 자신의 사명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물에 빠졌다는 것은 베드로의 믿음이 덜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물을 쳐서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도 여전히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잡은 물고기를 달라고 청하십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있었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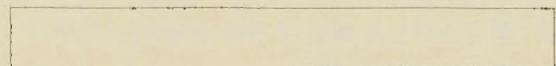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바다에 나아가 그분의 사명을 실천한다면, 그 사명이 충만히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사는 영원한 생명의 자양분을 얻는 하느님 나라의 잔치를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누는 식사에 제자들이 초대된 것처럼 세상 사람 모두가 초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바다에서 당신을 알지 못하고 삶에 허덕이며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낚을 어부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제대로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 못해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우를 우리가 피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충실히 따르는 것뿐입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 뵈옵고 그분 사명에 따라 세상사람들을 회개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주님과 함께 이 사명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것의 상징은 바로 식사, 즉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입니다. 주님의 명을 실현하는 가운데 언제나 우리는 주님께 의존하고, 주님을 만나면서 사명 실천에 대해 말씀드리며,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인 성체성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깊은 소명을 깨닫고, 세상의 바다에 나아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언제나 그분을 우리 삶 속에서 만나고 의존할 수 있는 신앙을 청하도록 합시다.

◆양해룡 사도요한 신부

<서울대교구 선교전례사무부>



이번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천남숙 리디아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황지영 안젤라	권순길 체첼리아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서용숙 에스텔	박희자 마리아
제물봉헌자			도런스 서 3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문재원 클로틸다	남성철 베네딕도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이상철 크리스토퍼	유철희 마오로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이희경 크리스티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도런스 북 1반

-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9~12학년 * 기간 : 7월23일(금)~25일(주일)
 - 신청 : \$175(4월25일까지), \$185(5월30일까지), \$195(마감이후) * 마감: 5월30일
 - 참고 웹사이트 : www.all4godcatholic.com
 - 접수: 주일학교 *문의: 강아네스 교장 ☎(310)780-0369

◆ 주일학교 견진성사

- 리허설 : 5월14일(금) 오후 7시30분~9시
- Reflection : 5월20일(목) 오후 7시
- 견진성사 : 5월21일(금) 오후 7시
- 대상 : 주일학교 견진성사 대상자(10학년 이상)
- 장소 : St. Margaret Mary (25511 Eshelman Av. Lomita)
- 견진성사자와 대부모는 위 3일일정에 꼭 참여해야 합니다.

◆ 주일학교 첫영성체 예식

- 일시 : 6월6일(주일) 오전 11시 미사중
- 첫 고해성사 및 리허설 : 6월5일(토) 오후 3시
- 대상 : 주일학교 2학년~6학년, 첫영성체 받지 않은 어린이
- 신청서: 편지로 우송됨

남가주 소식

◆ 남가주 청년연합회 체육대회

- 각 한인성당의 대학생과 청년들의 단합을 위한 친선체육대회.
- 일시 : 오늘 주일(18일) 오후 1시~7시
 - 장소 : 백삼위 본당
 - 문의 : 최인용 안드레아 백삼위청년회장 ☎(310)386-0336

◆ 제9회 남가주 M.E.친선골프대회

- 일시 : 5월18일(화) 오후 1시 티오프(등록 낮12시)
- 장소 : Moorpark Country Club ☎(803)532-2834
11800 Championship Dr. Moorpark, CA 93021
- 회비 : \$100(중식 및 석식제공)
- 시상 : 메달리스트, 장타상, 근접상, 홀인원, 부부상 등 다양
- 문의 : 이남현 박시모 ☎(213) 272-3598

◆ 'Census 2010'(미국인구조사)에 적극 참여합시다!

- 2010년 3월부터 각 가구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배달된 인구조사 설문지에 적극적으로 응답합시다. 10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는 국가 정책결정(코리언 커뮤니티 포함)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 * 문의 : 한인 홍보관 주정배(제니 주) ☎(213)923-0709

이번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	--

다음 주 단체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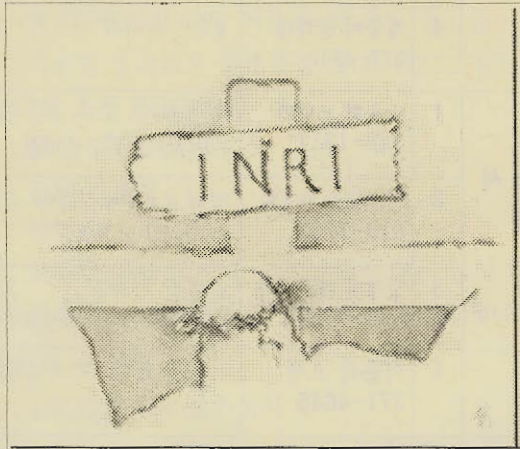
4월 사목상임위	오후 1시
----------	-------

소공동체 부 장		김씨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테레사 328-0847	지정완 안젤라 972-8292 4/10(토) 오후 7시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김찬구 요한 782-7437 4/10(토) 오후 7시 성당
	3	신덕레 테레사 494-1390	신덕레 테레사 494-1390 4/15(목) 오후 8시10분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박정애 소화 데레사 218-7340	1	김순희 모니카 328-1817	이병찬 543-8084 4/9(금) 오후 7시30분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박야고보&세실리아 619-7763 4/10(토) 오후 6시
	3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김미성 미리암 798-6540 4/13(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최옥희 테레사 378-4183	임영숙 마리아 373-5662 4/16(금) 오후 7시30분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양희숙 마리아 325-6982 4/14(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이혜선 안젤라 793-773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4/9(금) 오후 7시30분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권병연 리디아 938-3255	1/2	최미열 클라라 895-8624	최미열 클라라 895-8624 4/17(토) 오후 7시
	3	대건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유영균 우르바노 985-2882 4/10(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최재은 베드로 997-9006 4/9(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병학 안드레아 544-4807 4/9(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이문중 바오로 938-4529 4/16(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유혜영 클라라 377-2806 4/13(화) 오전 10시30분

특강! 고지

십자가상 윗부분에 붙어 있는 'INRI'의 의미는?

서기 33년경, 로마 총독 빌라도 관저에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는 나자렛 출신 예수라는 인물로, 그의 첫 번째 죄목은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유다교의 핵심 계명인 안식일법(마르 3,1-6 참조)과 정결레법(마태 15,1-20 참조)에 대한 도전적 발언으로 가뜩이나 위기에 몰



려 있던 그였습니다. 이제는 하느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명으로 대제관과 원로들의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요한 2,19)

그러나 단지 성전의 권위를 무너뜨렸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사형에 처할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두 번째로 적용시킨 죄목은 정치적 선동죄였습니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요한19,19)

예수의 죄명을 “유대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 라틴어로 Iesus-Nazarenus-Rex-Iudaeorum을 적용시킨 것입니다. 이 약칭 'INRI'가 십자가상 윗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했다는 사실 자체가 로마 제국의 독자적인 결정을 시사합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정치적 선동죄로 로마 제국에 고발하여 선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사형(로마식 형벌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람들은

대역죄를 범한 폭도, 탈영한 군인, 성전강도와 같은 중죄인들이었다), 곧 십자가형을 그에게 집행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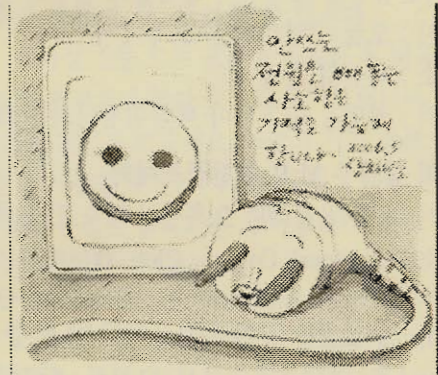
십자가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야 하는 십자가, 남이 나에게 지우는 십자가, 또 하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사순시기의 절정을 향해 나아가면서 나에게 지워진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십자가는 고통스럽게 지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슴에 품고’ 부활의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1코린 2,2).

21세기 ‘오병이어’의 기적

당장 쓰지 않는 전원 플러그를 빼는 일은 핵발전소 한 채를 짓지 않아도 되는 비결이며, 체르노빌 사태를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구의 전원만 다 빼

면 일 년에 한 달 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가전제품 종류가 많아지면서, 밤 낮으로



흘러버리는 전기 양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수도꼭지 틀어놓은 채 잠자리에 들거나 외출하지 않듯, 전기도 마찬가지로. 냉장고만 두고 TV와 컴퓨터를 비롯한 나머지 기구의 전원을 빼는 일, 그건 발전소 하나를 덜 짓는 생태경영이며, 댐 쌓는 일을 줄이기도 합니다. 댐 하나를 덜 쌓으면, 강물이 말라 거기 사는 물고기들을 때죽음으로 모는 일도 삼가니, 이 모든 혜택을 합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기서 보게됩니다. 심한 비유일까요?

◆환경사목위원회